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남녀 다집단 분석*

안혜연** · 설경옥***

초 록

본 연구는 성인기 자녀에 대한 과보호 양육행동인 헬리콥터 양육과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은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핵심자기평가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하였으며, 남녀 간 성차를 확인하였다. 전국 50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고 다집단분석으로 성차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모의 헬리콥터 양육은 핵심자기평가를 매개로 사회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부의 헬리콥터 양육은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만 나타났다. 독립표본 t 검증에서 남녀가 지각하는 헬리콥터 양육 수준의 차이가 없었고, 다집단 분석 결과 부모의 성별과 자녀 성별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핵심자기평가의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나, 남성 집단의 경우 여성 집단에 비해 모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성 집단의 경우 여성 집단과 달리 부의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이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이며, 이 부정적 효과는 특히 아들에게서 더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평가의 상위개념인 핵심자기평가로 부모의 양육이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여, 성인 진입기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녀 성별에 따른 양육효과와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헬리콥터 양육, 핵심자기평가, 사회적 안녕감, 성차, 대학생 자녀

* 본 연구는 안혜연(2016)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koseol@ewha.ac.kr

I. 서 론

1990년대 경제적 불안정성, 경쟁적 사회분위기로부터 성인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가까이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대인관계, 취업, 결혼 등에 간섭하는 과보호적 양육방식으로 헬리콥터 양육이라는 신조어가 발생하였다(이용화 외, 2014; van Ingen et al., 2012). 헬리콥터 양육은 주로 성인 초기 자녀들이 경험하는 과잉 보호적 양육 방식으로,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는 성인기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존성은 높여 결과적으로 대학졸업 이후에도 성인으로서의 독립된 삶을 지연시킨다(이용화 외, 2014; Segrin, Woszidlo, Givertz, Bauer & Murphy, 2012). 헬리콥터 양육방식은 성인기 자녀의 불안과 우울 그리고 낮은 삶의 만족감(신판섭, 윤영신, 2014; 한기백, 2014; Stevens, Bardeen & Murdock, 2015)과 같은 개인 내적 안녕감 뿐 아니라, 자녀가 사회적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성 발달에도 해가 될 수 있다(Spokas & Heimberg, 2009).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이들의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쾌락적 관점(hedonic view)에서 개인적 행복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관적 안녕감과 다르게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사회적 과제와 도전을 얼마나 잘 해결하고 적응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안녕감이다(Keyes, 1998).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에 느끼는 소속감, 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기대,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포함한다(Keyes, 1998). 특히 사회적 안녕감은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와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는 성인초기의 적응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성인 자녀의 자율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헬리콥터 양육은 성인 초기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

헬리콥터 양육과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자녀의 자발성, 유능성, 자기 효능감 저하, 특권 의식 증가, 그리고 낮은 내적 통제소재가 연구되었다(Kwon, Yoo & Bingham, 2015;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이러한 매개변인들을 종합하면 낮은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를 지닌 개인의 특징과 유사하다. 핵심자기평가는 자기 가치, 유능성, 능력에 대해 스스로 내린 광범위한 평가이다. 핵심자기평가가 낮은 개인은

자기 자신 및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문제가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Judge, Erez & Bono, 1998). 대표적인 과보호 양육방식인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의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과 같은 기본 심리 욕구를 저해한다(Schiffirin et al., 2014).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이러한 기본 심리 욕구의 좌절이 내적 동기, 자기조절능력에서 오는 내적 통제,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Deci & Ryan, 2000). 내적 통제소재와 자기효능감이 핵심자기평가의 주요 하위요인이라는 점에서 핵심자기평가가 헬리콥터 양육과 관련된 자녀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변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과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녀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헬리콥터 양육의 개념과 성차

과잉 보호적 혹은 과잉 참여적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헬리콥터 양육은 기존에 아동을 대상으로 정의한 과보호 양육과 달리, 높은 통제, 낮은 자율성 인정에 더해서 성인 초기 자녀를 향한 발달 단계상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돌봄과 지지라는 특성을 띤다(Padilla-Walker & Nelson, 2012). 돌봄과 지지라는 긍정적 요인 때문에 헬리콥터 양육이 애정을 매개로 자녀의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예측한 연구도 있으나(Lee & Kang, 2018), 부모 이외의 친밀한 관계와 독립성을 추구하는 초기 성인기 발달 특성상 헬리콥터 양육과 성인자녀 문제의 부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과보호 및 헬리콥터 양육은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전통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Schiffirin et al., 2014). 그러나 최근 헬리콥터 양육 연구에서는 아버지 헬리콥터 양육이 성인 자녀

의 자율성을 매개하여 안녕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Schiffirin et al., 2019), 성인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직접효과가 발견되었다(Rousseau & Scharf, 2015).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ve, May, Cui & Fincham, 2020). Love et al.(2020) 연구에서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이 통제감을 매개로 대학생 자녀의 학업탈진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헬리콥터 양육보다 학업탈진에 더 강한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유능감의 상관이 어머니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Love, Cui, Allen, Fincham & May, 2019).

아버지 양육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서석원, 이대균, 2014; 홍길희, 정미자, 2008) 대학생 자녀의 진로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2010; 윤지현, 홍혜영, 2016). 사회적 안녕감과 관련해서도 아버지의 특성 및 자녀와의 관계가 대학생 자녀의 대인불안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했다(김인기, 2012; 이현주, 오윤자, 2011). 그러나 Nelson, Padilla-Walker와 Nielson(2015) 연구에서는 어머니 헬리콥터 양육과 온정의 상호작용이 자기 가치감과 위험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아버지 헬리콥터 양육의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등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 효과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영국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가 아들의 자존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했으나, 딸의 자존감과는 상관 없었다(Lloyd & Miller, 1997). 국내 연구에서도 남자 집단에서만 부모의 과보호와 자아탄력성과 우울이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김지연, 오경자, 2011).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에 자기효능감이 포함되었는데(김지연, 오경자, 2011)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핵심자기평가의 중요한 하위요인이다(Judge et al., 1998). 황예텔과 이경순(2019)의 대학생 연구에서 딸과 다르게 부모의 과보호가 아들의 사회불안을 예측했는데 연구자는 이를 정서적 민감성이 높은 여성은 과보호를 애정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남성은 과잉기대나 과잉간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과보호 및 헬리콥터 양육에 딸보다 아들이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일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핵심자기평가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에 더 부정적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2. 사회적 안녕감과 헬리콥터 양육

성인 초기 대학생의 핵심 발달과업은 정체성과 친밀감 형성이다(Erikson, 1968).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가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사회관 그리고 타인을 수용하는 긍정적 태도로 정의되며, Keyes(1998)는 이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기여(social contribution), 실현(social actualization), 일관성(social coherence), 수용(social acceptance)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정체성과 친밀감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역할 이행 과정에서 발달된다(Joshanloo & Nostrabadi, 2009).

헬리콥터 양육과 성인 초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부적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만(예: Kwon et al., 2015; Schiffrin et al., 2014) 헬리콥터 양육과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부모가 성인 자녀의 독립성 발달을 제한하고 의존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숙도를 저해하고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van Igen et al., 2012). 실제 대학생 자녀 대상 연구에서 과보호를 받는 자녀의 사회 불안이 높았고(Spokas & Heimberg, 2015),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관계 만족 뿐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이었다(신관섭, 윤영선,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이 개인의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사회적 안녕감에 부정적일 것이라 예측했다.

3. 핵심자기평가와 헬리콥터 양육 및 사회적 안녕감

핵심자기평가는 자기 가치, 유능성, 능력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이다(Chang, Ferris, Johnson, Rosen & Tan, 2012). 핵심자기평가는 자기평가의 상위 개념으

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 그리고 신경증(혹은 정서적 안정성)과 같은 단일차원의 자기평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Judge et al., 1998).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성을 하위특질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자기평가의 구성 요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Chang et al., 2012).

핵심자기평가는 조직행동연구에서 시작되어 직업만족도, 수행, 성공, 일에 대한 인식과 헌신 정도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며(Chang et al., 2012) 아직 핵심자기평가와 사회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사회적 연대를 더 잘 맺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Chiu, Wu, Zhuang & Hsu, 2009; Johnson, Kristof-Brown, Van Vianen, De Pater & Klein, 2003) 이를 통해 핵심자기평가와 사회적 안녕감의 정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통합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는가에서 시작되며, 자기 삶을 예측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여길 때 사회 또한 일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Keyes, 1998). 이러한 특성은 높은 핵심자기평가를 지닌 개인의 특질과 유사하다. 핵심자기평가의 하위요인인 통제감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 비밀관적 양육, 낮은 돌봄 등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에 있다(Keeton, Perry-Jenkins & Sayer, 2008; O'Connor & Shimizu, 2002). 또한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의 자기 가치감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Nelson et al., 2015), 상위수준인 핵심자기평가와 헬리콥터 양육이 유의한 관계에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의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과 같은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을 저해하는데(Schiffirin et al., 2014) 기본 심리 욕구 충족은 내적 동기와 자기조절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이는 행동의 결과를 자기 내적 요인에서 찾는 내적 통제소재와 연결된다(Deci & Ryan, 2000). 개인이 통제소재를 외부에 두는 것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사회관계적 맥락에서의 낮은 유능감을 예측한다(van Igen et al., 2012). 실제로 헬리콥터 양육이 외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낮은 정서적 안녕감 및 사회불안을 예측하였으며(Kwon et al., 2015; Spokas & Heimberg, 2008), 이를 통해 헬리콥터 양육과 핵심자기평가,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의 긴밀한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모형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이나 특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때 부모의 영향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Barnett, Deng, Willoughby & Cox, 2008). 비독립적인 자료를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할 때 p 값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모형을 설정하거나 쌍표본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Kenny, Kashy & Cook, 2006).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는 모 헬리콥터 양육과 부 헬리콥터 양육의 공분산을 추정하는 경로를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첫째, 부모 헬리콥터 양육과 사회적 안녕감은 부적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 관계를 핵심자기평가가 매개할 것이다. 둘째, 핵심자기평가로 매개된 지각된 부모 헬리콥터 양육과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자 집단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김지연, 오경자, 2011; 황예텔, 이경순, 2019). 셋째, 헬리콥터 양육의 대상인 부모의 성별과 자녀 성별의 상호 작용은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가설 없이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5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심리학 수업 그리고 조사 전문회사 ‘엠브레인’을 통해 모집하여 모두 온라인 설문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가로 심리학 수업에서의 참여자는 수업 참여 추가 점수를, 엠브레인 참여자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받았다. 부모가 초혼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로 참여자를 제한하였고 온라인 설문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 참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51명을 제외하여 총

505명(여성 265명, 남성 240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34세($SD=2.35$)이었으며, 1학년 41명, 2학년 131명, 3학년 123명, 4학년 170명, 5학년 이상이 40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헬리콥터 양육

헬리콥터 양육은 LeMoynes와 Buchan(2011)의 Helicopter Parenting Scale(HPS)을 유계숙(2014)이 한글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7점 Likert식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대학생 삶 전반에 과도하게 관여하며, 역기능적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헬리콥터 양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함께 측정하는 대신, ‘어머니’(예: 어머니는 나의 모든 성장과정을 일일이 관리하셨다.)와 ‘아버지’(예: 아버지는 나의 모든 성장과정을 일일이 관리하셨다.)로 분리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내적 신뢰도는 모 헬리콥터 양육이 .76, 부 헬리콥터 양육이 .71이었다.

2) 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한다.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10문항), Chen, Gully와 Eden(2001)의 단축형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8문항), Levenson(1981)의 내적 통제위치 하위척도(6문항)는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신경증을 역채점하는 정서적 안정성의 경우 구성 하위요인에서 제외되기도 한다(Judge, Thoresen, Pucik & Welbourne, 1999; Sager, Strutton & Johnso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영아(2015)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자아존중감(예: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일반 자기효능감(예: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내적 통제(예: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로 내 능력에 달려있다.)의 총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 자기 개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자아존중감 .86, 자기효능감 .91, 내적 통제 .78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은 Shapiro와 Keyes(2008)의 Social Well-Being Scales 척도를 한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기여(예: 나는 이 세상에 내놓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일관성(예: 나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예: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사회적 실현(예: 세상은 모든 사람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4개의 하위요인으로 7점 Likert식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와 사회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사회적 기여 .79, 사회적 통합 .76, 사회적 실현 .68 사회적 일관성 .51이었다. 번안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 모형은 적절하였고($\chi^2(29)=152.803$, CFI=.922, SRMR=.055, RMSEA=.092) 모든 문항이 각 구인에 유의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SPSS 22.0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AMOS 18.0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고 모형 적합도와 간명성은 TLI와 CFI도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며, SRMR은 .08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entler, 1990; Hu & Bentler, 1999). RMSEA는 .08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라 평가하였다(Browne & Cudeck, 1993).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Byrne(2001)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인은 왜도의 절대값 2, 첨도의 절대값 7을 넘지 않는 정상 분포 범위에 속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1

주요 변인 기술 통계

(N = 505)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모 헬리콥터 양육	28.38	7.45	11.00	50.00	.11	-.43
부 헬리콥터 양육	25.25	7.29	8.00	50.00	.33	.06
핵심자기평가	86.43	13.15	52.00	120.00	-.16	.03
자기효능감	29.70	5.16	14.00	40.00	-.27	.09
자아존중감	34.77	6.20	17.00	50.00	-.20	-.02
내적 통제	21.95	3.55	7.00	30.00	-.11	.54
사회적 안녕감	45.37	8.39	22.00	68.00	-.01	-.19
사회적 일관성	7.90	2.25	3.00	14.00	.49	-.07
사회적 통합	14.32	3.26	5.00	21.00	-.42	-.32
사회적 기여	14.52	3.25	6.00	21.00	-.16	-.55
사회적 실현	8.63	2.41	2.00	14.00	.01	-.34

독립검정 t 테스트로 성차를 알아본 결과 부와 모의 헬리콥터 양육, 핵심자기평가 변인에서 성차는 없었다. 사회적 안녕감은 하위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일관성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으며($t=5.36$, $p<.001$),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일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

에서 모두 핵심자기평가는 사회적 안녕감(남 $\gamma=.71$, $p<.01$, 여 $\gamma=.64$, $p<.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모 헬리콥터 양육과 핵심자기평가(남 $\gamma=-.39$, $p<.01$, 여 $\gamma=-.16$, $p<.01$)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남성 집단에서는 부 헬리콥터 양육과 핵심자기평가($\gamma=-.32$, $p<.01$) 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가 발견된 반면, 여성 집단($\gamma=-.07$)에서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인의 성별에 따른 상관 분석 결과 (남 $N=240$, 여 $N=265$)

	1	2	3	3-1	3-2	3-3	4	4-1	4-2	4-3	4-4
1. 모 헬리콥터 양육	1	.42**	-.16*	-.14*	-.17*	-.14*	-.15*	-.16**	-.11	-.09	-.10
2. 부 헬리콥터 양육	.58**	1	-.07	-.08	-.06	-.05	-.13*	-.19**	-.06	-.17	-.04
3. 핵심자기평가	-.39**	-.32**	1	.89**	.89**	.77**	.64**	.38**	.47**	.67**	.32**
3-1. 자기 효능감	-.36**	-.30**	.92**	1	.66**	.61**	.49**	.27**	.36**	.50**	.23**
3-2. 자아 존중감	-.39**	-.36**	.92**	.75**	1	.53**	.68**	.43**	.54**	.63**	.35**
3-3. 내적 통제	-.27**	-.18**	.83**	.71**	.63**	1	.41**	.26**	.24**	.44**	.24**
4. 사회적 안녕감	-.37**	-.34**	.71**	.60**	.74**	.49**	1	.62**	.81**	.78**	.68**
4-1. 일관성	-.41**	-.34**	.50**	.40**	.54**	.34**	.77**	1	.36**	.35**	.28**
4-2. 통합	-.16*	-.19**	.53**	.48**	.53**	.39**	.75**	.38**	1	.46**	.41**
4-3. 기여	-.32**	-.33**	.71**	.62**	.73**	.49**	.86**	.59**	.48**	1	.37**
4-4. 실현	-.27**	-.18**	.40**	.31**	.44**	.27**	.72**	.49**	.37**	.43**	1

* $p<.05$, ** $p<.01$, *** $p<.001$, 대각선 아래 남, 대각선 위 여

2. 측정모형 검증

최대우도측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측정하였으며, 분석시 χ^2 의 값이 91.597, 자유도(df)가 1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0$). 그러나 χ^2 의 검증을 할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CFI가 .947, SRMR는 .0459에 해당하여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를 확인하였을 시 .516~.902로 모든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수 간 공분산 계수는 4.779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는 .888로 확인되었다.

3.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111.601(df=26, p=.000)$ 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의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CFI=.947, SRMR=.0433, TLI=.917, RMSEA=.087)(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모 헬리콥터 양육은 핵심자기평가($\beta = -.24, p < .001$)를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고 핵심자기평가는 다시 사회적 안녕감($\beta = .87, p < .001$)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했다. 즉, 모 헬리콥터 양육은 낮은 핵심자기평가를 매개로 낮은 사회적 안녕감을 예측하였다. 반면, 부 헬리콥터 양육은 대학생 자녀의 핵심자기평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안녕감($\beta = -.10, p < .05$)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였다. 이와 달리 모 헬리콥터 양육에서 사회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양인 다중 상관 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확인한 결과, 지각된 모와 부의 헬리콥터 양육에 의해 핵심자기평가는 9%, 사회적 안녕감은 79%가 설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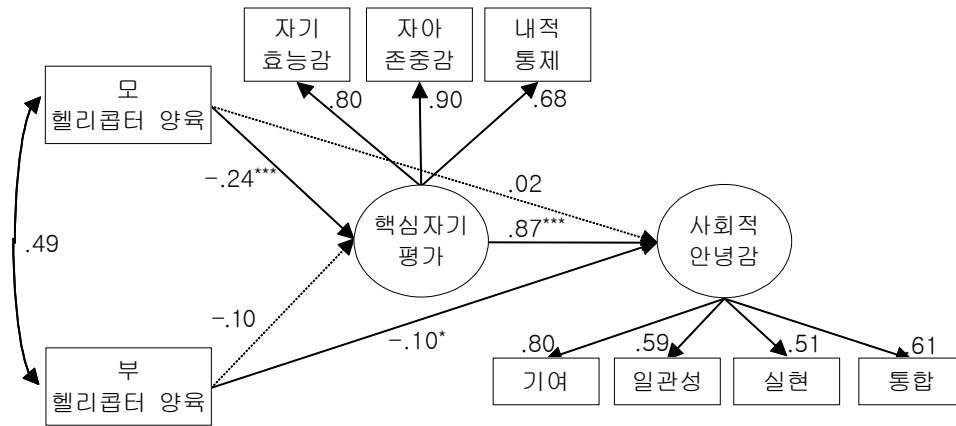
표 3

구조 모형의 모수추정치

(N = 505)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Critical Ratio
모 헬리콥터 양육 → 핵심자기평가	-.14	-.24	.029	-4.59***
부 헬리콥터 양육 → 핵심자기평가	-.05	-.10	.030	-1.81
모 헬리콥터 양육 → 사회적 안녕감	.01	.02	.014	.39
부 헬리콥터 양육 → 사회적 안녕감	-.03	-.10	.014	-2.37*
핵심자기평가 → 사회적안녕감	.55	.87	.034	16.30***

* $p < .05$, *** $p < .001$.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1.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원 자료에서 무선헌당으로 5,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을 검정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 모 헬리콥터 양육과 사회적 안녕감이 갖는 간접효과의 표준화 계수는 $-.212$ 로 나타났으며, 모수의 95% 신뢰구간이 $[-.303, -.125]$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p < .001$).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의 경우 사회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회귀 계수만 유의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이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각각 $-.196$ ($p < .001$)과 $-.178$ ($p < .01$)로 나타났다.

4.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구모형의 성차를 확인하고자 Byrne(2001)이 제시한 방법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 제약의 절차를 거쳤다. 제약 과정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동일성 검정 적합도 지수

(N=505)

	χ^2	df	TLI	CFI	SRMR	RMSEA
기저 모형	145.924	46	.908	.941	.046	.066
측정동일성	158.742	51	.910	.936	.052	.065
구조동일성	175.445	56	.909	.929	.073	.065

기저모형은 다른 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구성된 모형으로 변수들간 모든 경로 계수들이 두 집단의 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이다(노형진, 2003). 잠재변수와 오차의 평균을 두 집단에서 모두 0으로 고정하여 기저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145.924(p=.000, df=46)$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지표들을 확인한 결과 TLI=.908, CFI=.941, SRMR=.046, RMSEA=.066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문항과 변수와의 경로들이 집단 간 차이가 없을 것이라 가정하여 제약을 부과한 모형과 기저 모형의 χ^2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χ^2 의 차이가 유의하므로($\Delta\chi^2(df=5)=12.818, p<.001$), χ^2 의 차이에 의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검정은 표본크기나 검정통계량의 비정규성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Cheung & Rensvold, 2002). 따라서 복잡한 모형에서 단순한 모형을 비교할 때 CFI 값이 .01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면 측정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Cheung과 Rensvold(2002)의 기준에 따라, 본 모형을 확인한 결과 $\Delta CFI=-.005$ 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에서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모형의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경로	남	여
모 헬리콥터 양육 → 핵심자기평가	-.214 ^{***} (-.325)	-.082 [*] (-.174)
부 헬리콥터 양육 → 핵심자기평가	-.108 [*] (-.169)	-.002 (-.004)
모 헬리콥터 양육 → 사회적 안녕감	.003 (.008)	.009 (.029)
부 헬리콥터 양육 → 사회적 안녕감	-.036 (-.087)	-.034 (-.109)
핵심자기평가 → 사회적 안녕감	.553 ^{***} (.865)	.551 ^{***} (.873)

* $p < .05$, *** $p < .001$. 괄호 밖 비표준화 계수, 괄호 안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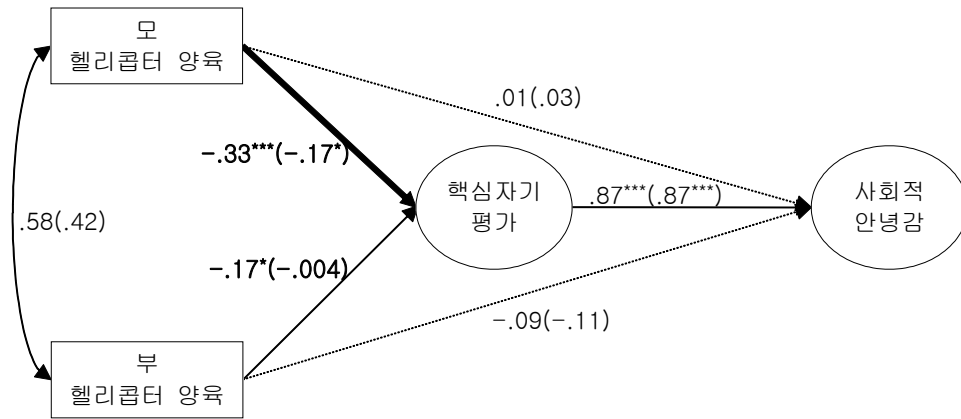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으므로 집단 간 등가 제약을 과정을 통해, 변수들 간 경로를 제약한 후 측정동일성 모형과 χ^2 검정 통계량 및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하였다.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할시, χ^2 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Delta\chi^2(df=5) = 16.703$, $p < .001$) 다른 적합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Delta CFI = .007$, $\Delta TLI = -.001$, $\Delta RMSEA = .000$). 단,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모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남성이 -.325 ($p < .001$), 여성이 -.174($p < .05$)으로 남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2). 이를 제외한 경로에서는 남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남성 집단의 경우 전체 모형 그리고 여성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부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했다.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 남녀집단 차이 비교

경로	df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모 헬리콥터 양육 → 핵심자기평가	1	4.697 [*]	.001
부 헬리콥터 양육 → 핵심자기평가	1	3.041	.000
모 헬리콥터 양육 → 사회적 안녕감	1	.031	-.003
부 헬리콥터 양육 → 사회적 안녕감	1	.003	-.003
핵심자기평가 → 사회적 안녕감	1	.002	-.003
모든 경로에 동일성제약	5	16.702	.001

* $p < .05$



괄호 밖: 남성 집단, 괄호 안: 여성 집단
 굵은 선: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5$, *** $p < .001$.

그림 2. 최종 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VI.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초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사회적 안녕감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역할을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 수준과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 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각각 사회적 안녕감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은 핵심자기평가를 매개로 사회적 안녕감을 간접적으로 예측한 반면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의 핵심자기평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안녕감은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성차 검증결과 이러한 결과는 남성 집단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고, 더 나아가 남성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이 아들의 핵심자기평가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은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은데 반해 아버지 헬리콥터 양육은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학령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아버지 양육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서석원, 이대균, 2014; 홍길희, 정미자, 2008)가 성인기 초기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은 사회화의 기본적인 전제로 알려져 왔으며(Trusty & Dooley-Dickey, 1993), 부 애착이 모 애착보다 학령기 자녀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박원모, 천성문, 2008). 이와 같이 사회적 역할과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안녕감과 아버지 양육이 깊은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은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았지만 핵심자기평가는 직접적으로 예측했고, 핵심자기평가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을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자녀의 근본적인 자기 인식에 더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van Ingen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자녀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Darlow, Norvilitis와 Schuetze(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사회적 적응을 부적으로 예측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는 자녀의 자기개념 및 자기평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차 검증결과 남성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여성 집단에 비해 더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이르는 직접경로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에 심리사회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 양육의 과잉 간섭 요인이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 집단에 애정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결과(문경주, 오경자, 2002)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이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의 영향에 더 취약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는 미비하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점은 남성의 경우 헬리콥터 양육에서 발달된 일부 성격적 특성이 여성보다 적응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보호적 양육은 자녀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자녀가 학교에서의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데 (Olweus, 1993), 수줍은 남자 청소년은 수줍은 여자청소년보다 또래 괴롭힘의 더 많이 경험하였고(설경옥, 경예나, 지영진, 2015) 또래 괴롭힘은 낮은 자존감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박종효, 2007).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성인기 자녀의 진학 및 진로, 결혼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연구는 성인기 이전으로 한정되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대학생으로 연구연령을 확장하여 이 시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과보호 양육 유형인 헬리콥터 양육과 청년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확인하고 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확인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에서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자존감 등을 각각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근원적이고 광범위한 자기개념인 핵심자기평가로 설명함으로써 헬리콥터 양육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에 미치는 포괄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차검증을 통해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어머니의 헬리콥터 양육과 핵심자기평가간의 강한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에서 우울한 남학생이 우울한 여학생보다 아버지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더 높게 지각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과잉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는 결과(정지영, 김종남, 2011)를 함께 고려했을 때, 특히 남성 집단에서 헬리콥터 양육이 미치는 효과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헬리콥터 양육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좌절시켜 사회의 건강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효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헬리콥터 양육의 효과에 성차가 발견됨에 따라 남녀 집단에 따라 구별된 방식의 개입이 요구되며,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도 제고해야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헬리콥터 부모 역할 척도가 1요인으로 구성되어 헬리콥터 양육의 어떠한 측면이 자녀의 핵심자기평가와 사회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헬리콥터 양육은 높은 통제 뿐 아니라 돌봄과 온정도 포함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참여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보고 되기도 하였다(Padilla-Walker & Nelson, 2012). Lee와 Kang(2018)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양육이 부모의 취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압력을 매개로 자녀의 우울증상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부모 자녀 간 애정을 매개로 더 좋은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양육의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예측하는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헬리콥터 양육이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경로의 차이를 발견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남성의 경우 사회적 평판 중에서도 능력 유능감이 일관되게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이홍표, 이홍석, 2006), 남아의 발달과정에서 헬리콥터 양육이 또래 관계와 평판을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핵심자기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성집단이 여성집단에 비해 헬리콥터 양육에 더 취약한 이유에 대해 더욱 다차원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25-126.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doi:10.15842/kjcp.2011.30.3.002
- 김인기 (2012).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특성과 대인불안,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 경로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0(2), 29-56. doi:10.35151/kyci.2012.20.2.002
- 노형진 (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20, 223-238.
- 박원모, 천성문 (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41-59. doi:10.16983/kjisp.2008.5.1.41
- 박은선 (2010). 아버지의 특성과 긍정적 인지와 질문이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117-1136. doi:10.15703/kjc.11.3.201009.1117
- 박종효 (2007). 집단따돌림(왕따)에 대한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18(1), 247-272.
-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설경옥, 경예나, 지영진 (2015). 중학생의 성별, 수줍음,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33-54.
- 신판섭, 윤영선 (2014). 대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과보호성향이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1-특집호), 105-112.
- 유계숙 (2014). 헬리콥터부모역할이 대학생자녀의 출산의향과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3), 5-12.
- 윤지현, 홍혜영 (2016). 대학생의 아버지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4), 205-223. doi:10.15703/kjc.17.4.201608.205

- 이용화, 김지현, 임소연, 채명옥, 이해림, 오진아 (2014). 헬리콥터양육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4), 237-246. doi:10.4094/chnr.2014.20.4.237
- 이현주, 오윤자 (2011).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1), 157-173.
- 이홍표, 이홍석 (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29-344.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조영아 (201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과 핵심자기평가, 지각된 규범, 결과기대 및 실행의지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기백 (2014). 아동기의 부모 과보호와 대학생 우울의 관계: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427-448.
- 황예텔, 이경순 (2019).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 과보호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7(3), 179-206. doi:10.22327/kei.2019.37.3.179
- 홍길희, 정미자 (2008).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언어행태와자녀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237-260.
- Barnett, M. A., Deng, M., Mills-Koonce, W. R., Willoughby, M., & Cox, M. (2008). Interdependence of parenting of mothers and fathers of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4), 561-573. doi:10.1037/0893-3200.22.3.56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doi:10.1037/0033-2909.107.2.23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EQS, and LISREL: Comparative approaches to testing for the factorial validity of a measuring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1), 55-86. doi:10.1207/s15327574ijt0101_4
- Chang, C.-H., Ferris, D. L., Johnson, R. E., Rosen, C. C., & Tan, J. A. (2012).

- Core self-evaluations: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38, 81-128. doi:10.1177/0149206311419661
- Chen, G., Gully, S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 62-83.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doi:10.1207/s15328007sem0902_5
- Chiu, Y. P., Wu, M., Zhuang, W. L., & Hsu, Y. Y. (2009). Influences on expatriate social networks in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0(4), 790-80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doi:10.1037/1082-989x.1.1.16 a
- Darlow, V., Norvilitis, J. M., & Schuetze, P.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8), 2291-2298. doi:10.1007/s10826-017-0751-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oi:10.1207/s15327965pli1104_0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Johnson, E. C., Kristof-Brown, A. L., Van Vianen, A. E., De Pater, I. E., & Klein, M. R. (2003). Expatriate social ties: Personality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1(4), 277-288. doi:10.1111/j.0965-075x.2003.00251.x
- Joshanloo, M., & Nosratabadi, M. (2009). Levels of mental health continuum and

- personality trai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0, 211-224. doi:10.1007/s11205-008-9253-4
- Judge, T. A., Erez, A., & Bono, J. E. (1998). The power of being positive: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job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11(2-3), 167-187. doi:10.1080/08959285.1998.9668030
- Judge, TA., Thoresen, CI., Pucik, V., & Welbourne, TM. (1999). Managerial coping with organizational change: A disposi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107-122. doi:10.1037/0021-9010.84.1.107
- Keeton, C. P., Perry-Jenkins, M., & Sayer, A. G. (2008). Sense of control predicts depressive and anxious symptom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212-221. doi:10.1037/0893-3200.22.2.212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21-140. doi:10.2307/2787065
- Kwon, K., Yoo, G., & Bingham, G. E. (2015). Helicopter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Support or barrier for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 136-145. doi:10.1007/s10826-015-0195-6
- Lee, J., & Kang, S. (2018).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Korean emerging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child affection and pressure from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11), 3672-3686. doi:10.1007/s10826-018-1193-2
- LeMoyne, T., & Buchanan, T. (2011). Does 'hovering' matter? Helicopter parenting and its effect on well-being. *Sociological Spectrum*, 31(4), 399-418. doi:10.1080/02732173.2011.574038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In H. M. Lefcourt (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pp. 15-63). New York: Academic Press.
- Lloyd, C., & Miller, P. M. (1997).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style to depression

- and self-esteem in adulthood.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1), 655-663. doi:10.1097/00005053-199711000-00001
- Love, H., Cui, M., Allen, J., Fincham, F. D., & May, R. W. (2019). Helicopter parenting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xiety: Does Parents' Gender Matter?.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doi:10.1332/204674319x15653625640669
- Love, H., May, R. W., Cui, M., & Fincham, F. D. (2020). Helicopter parenting, self-control, and school burnout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2), 327-337. doi:10.1007/s10826-019-01560-z
- Nelson, L. J., Padilla-Walker, L. M., & Nielson, M. G. (2015). Is hovering smothering or loving? An examination of parental warmth as a moderator of relation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emerging adults' indices of adjustment. *Emerging Adulthood*, 3(4), 282-285. doi:10.1177/2167696815576458
- O'Connor, D. B., & Shimizu, M. (2002). Sense of personal control, stress and coping style: A cross-cultural study. *Stress and Health*, 18(4), 173-183. doi:10.1002/smi.939
- Olweus, D. (1993). Bullies on the playground: The role of victimization. In C. H. Hart (Ed.), *Children on the playgrounds* (pp. 85-128).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dilla-Walker, L. M., & Nelson, L. J. (2012). Black hawk down?: Establishing helicopter parenting as a distinct construct from other forms of parental control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5(5), 1177-1190. doi:10.1016/j.adolescence.2012.03.00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usseau, S., & Scharf, M. (2015). "I will guide you" the indirect link between overparenting and young adults' adjustment. *Psychiatry Research*, 228(3), 826-834. doi:10.1016/j.psychres.2015.05.016
- Sager, J. K., Strutton, H. D., & Johnson, D. A. (2006). Core self-evaluations and salespeople. *Psychology and Marketing*, 23, 95-113. doi:10.1002/mar.20102

- Schiffirin, H. H., Erchull, M. J., Sendrick, E., Yost, J. C., Power, V., & Saldanha, E. R. (2019). The effects of maternal and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well-being of emergi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12), 3346-3359. doi:10.1007/s10826-019-01513-6
- Schiffirin, H. H., Liss, M., Miles-McLean, H., Geary, K. A., Erchull, M. J., & Tashner, T. (2014). Helping or hovering? The effects of helicopter parenting on college students'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3), 548-557. doi:10.1007/s10826-013-9716-3
- Segrin, C., Woszidlo, A., Givertz, M., Bauer, A., & Murphy, M. T.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over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entitlement and adaptive traits in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61(2), 237-252. doi:10.1111/j.1741-3729.2011.00689.x
- Shapiro, A., & Keyes, C. L. M. (2008). Marital status and social well-being: Are the married always better off?.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2), 329-346. doi:10.1007/s11205-007-9194-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 Spokas, M., & Heimberg, R. G.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social anxiety,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6), 543-551. doi:10.1007/s10608-008-9227-5
- Stevens, E. N., Bardeen, J. R., & Murdock, K. W. (2015). Parenting behaviors and anxiety in young adult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6, 170-176. doi:10.1027/1614-0001/a000169
- Trusty, J., & Dooley-Dickey, K. (1993). Alienation from school: An exploratory analysi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Journal of Research & Development in Education*, 26(4), 232-242.
- van Ingen, D. J., Freiheit, S. R., Steinfeldt, J. A., Moore, L. L., Wimer, D. J., Knutt, A. D., & Roberts, A. (2015). Helicopter parenting: The effect of an overbearing caregiving style on peer attachment and self-efficacy.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8(1), 7-20. doi:10.1002/j.2161-1882.2015.00065.x

ABSTRACT

Helicopter parenting, social well-being, and core self-evaluation of young adult children: As viewed through the prism of gender differences

Ahn, Hyeyeon* · Seol, Kyoungo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the social well-being of young adult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core self-evaluation and analyzed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examined. A total of five hundred and five undergraduate student respondents completed surveys. We found that maternal and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had different implications for their children's social well-being; Children's core self-evaluation mediated the link between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well-being. Nevertheless,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only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social well-being. We also found a number of interesting gender differences. The negative effect of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on children's core self-evalua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stronger among males. Furthermore, a negative effect of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on core self-evaluation was also only significant among males. We confirmed that whilst it was clear that helicopter parenting was harmful for both daughters and sons, the degree of these negative effects could be even more harmful for sons.

Key Words: helicopter parenting, social well-being, core self-evaluation, gender differences, emerging adults

투고일: 2020. 3. 6, 심사일: 2020. 5. 15, 심사완료일: 2020. 5. 27

*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oseol@ewha.ac.kr